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 되고 이용 불편해졌다

예산 부족 이유 고령 피해자 이동대책·식사 등 제공 부실 센터 측 "행안부 소관이라 서비스를 맘대로 바꿀 수 없다"

광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됐으나 이용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불편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치유센터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들의 이동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유센터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인프라다. 17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85)씨는 "평지를 걷는 것도 불편한데 치유센터까지 가려면 산길을 타야 해 한숨부터 나온다"고 호소했다.

최근 낙상사고로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김씨는 주거지인 북구 신안동에서 센터가 있는 서구 화정동까지 버스를 타는 것조차 힘들다고 토로했다. 버스를 서구 양동, 농성동 등지에서 두 번을 갈아 타고 중간에 육교도 건너가야 하는 등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이다.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도 난관이다. 정류장에서 내린 뒤 200여m 골목길을 지나고, 다시 200여m 굽이진 산길을 올라가야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셔틀버스나 카풀, 픽업 서비스라도 해 달라고 치유센터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치유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해달라 지자제라든 모를까 행안부 소관이 된 이후 서비스를 센터에서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북구 문흥동, 두암동 등에 사는 유족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버스를 여러차례 갈아 타면서 가야 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열사의 아내인 김순자(70)씨도 "오히려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불편해졌다"고 고개를 저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김씨는 "치유센터 가는 길에 눈에 띄는 안내판 하나조차 없어 두어 시간 동안 화정동 일대를 헤매기도 했다"며 "치유센터 이용자들이 70, 80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치유센터는 이용자들을 위한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 이용자는 "오전 10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화정동과 먼 곳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는 버스 시간을 맞추려고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센터를 찾아와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개관 이후 한 달 동안 점심을 일찍 제공되지 않았고, 인근에 변변히 점심을 사 먹을 곳도 없던 터라 이용자들은 배고픔에 떨어야 했다"고 푸념했다.

결국 항의를 받은 치유센터 측에서 지난 8월부터 점심 식사 대용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두 달 동안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떡과 꼬마김밥을 반복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한 이용자는 "국립 센터로 새로 문을 열었으면 당연히 이전보다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되도록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참여도 안 하게 된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 정치인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유센터 관계자는 "마음안심서비스를 운행하려면 1대당 4억원, 셔틀버스는 1대당 2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점심값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무한데 센터 내에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급식실 등 공간이 없다 보니 식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치유센터 운영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훈련 '2025 광주시 동구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에 참가한 광주교통공사, 광주시 동구보건소 등 직원들이 17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 광주교통공사 용산차량기지에서 생화학 물질을 소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예산까지 광주시에서 절반을 감당하라는 방침을 관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광주시에 '202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 공문을 보내 치유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11억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개관 당시에도 관련 예산을 16억원만 책정하고 인력을 13명밖에 배치하지 않은데다, 예산 절반을 광주시에 부담하라고 해 논란에 휘말린

적 있다.

이 때 광주시는 추경으로 예산 5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립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치유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11억 원만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광주에 예산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유센터는 지난 7월 1일 서구 화정동 옛 국

군통합병원 인근, 화정근린공원 내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개관했다. 치유센터 설립에는 총 사업비 107억원이 투입됐다.

17일 기준 치유센터 이용자(회원) 수는 총 1259명으로, 5·18 관련자 507명, 여순사건·한국전쟁·호남민족민주열사·강제징집·부마항쟁·삼청교육대·아랍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 752명이다. 이 중 국립 전환 이후 신규 등록된 회원은 32명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GGM 노조, 파업 취소...임단협 교섭 나선다

지방노동위 권고안 수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가 파업을 취소하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나선다.

17일 GGM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 주관 4차 조정 회의에서 노조와 사측은 지노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오는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섭장소는 새내 상생관·사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번갈아 하기로 했다. 교섭위원은 노사 각 7명이고, 교섭시간은 업무 시간인 오후 3시로 결정했다.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교섭이 필요하면 노사 간 협의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GGM 관계자는 "교섭을 통해 노조와 협의에 의견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광·곡성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15건(21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당

선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기부행위 3건(4명), 기타 4건(사전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등) 등이다. 이번 재선거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 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서 잇단 교통사고로 4명 사망

전남에서 잇따른 교통사고로 여성 4명이 숨졌다.

영암경찰청은 1t 트럭 운전자 A(5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영암군 신복면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후반과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을 위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 대화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화물차가 이들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승용차 앞에 서있던 여성들이 연달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과 고흥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성 2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7시께 순천시 해룡면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1t 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t 화물차 운전자 B(67)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C(여·69)씨를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시간에 늦어 급하게 가다가 C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마을 주민 C씨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오후 6시 50분께 고흥군 점암면에서는 아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기 위해 보행기를 끌고 갖길을 걸던 D(여·85)씨가 30대 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ww.jchf.or.kr

제30회 정읍시민의날

제35회 정읍시 문화제

2024. 10. 26.(토) ~ 10. 27.(일) / 2일간

정읍사 공원 일원

26일(토) 09:00	채수의례 여인제례
26일(토) 17:00	개막식
조항조 / 김태연 / 별사랑 / 김소유 방서희 / 조연비 / 양재동	
27일(일) 18:00	정읍사가요제
장윤정 / 정수라 / 신인선 / 정서영	

주최 | 주관 정읍시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문의 |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063.532.8880

2024년도 정읍시 정읍사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